

모처럼만에 만나는 국제정치학의 역서

이삼성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정영태

인하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연구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성과가 나왔다. 한림대 이삼성 교수가 1988년 이래 약 5년간의 강의와 연구성과를 묶어 출판한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와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저자가 이론과 구체분석의 조화와 결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독자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국제정치학관련 논저들이 외국(특히 미국)의 이론을 그대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거나 이론적인 논의없이 몇가지 사실들만을 짜집기식으로 묶어놓는 지극히 서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교수의 저작물은 국제정치학의 주요이론을 소개하되, 일관되고 명확한 자신의 관점에 따라 각 이론들을 평가하고, 동시에 구체분석도 빠뜨리지 않음으로써, 국제정치학의 이론과 현실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

「한국 정치경제학 한계 극복한 노력」

이 두권의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국제정치학의 논리와 구조, 미국의 대한 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 한국외교정책의 현황과 전망 등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주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매개로 국제정치학의 구조·논리와 한국정치학이 정확하게 아귀가 잘 맞추어진 '퍼즐(puzzle)' 처럼 결합되어 있다. 즉, 저자는 강대국의 이익과 정책이 압도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권력정치적(power politics) 국제정치질서의 논리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외교정책)에 의해 유지되고, 이러한 국제정치학의 논리가 주로 미국에 의해서 한국에 강요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카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미국외교정책의 동력 내지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수정주의자 내지 맑스주의자와는 달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현실주의적 권력정치론이 제시하는 구조적 요인, 즉 세계정부의 부재라는 조건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논리가 갖는 의미(implication), 즉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훌륭한 '실천지' (practical philosophy)일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은 약소국 내지 제3세계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조적 결정론'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구조의 조건이 미국의 국내적 요인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발현되는 매카니즘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행동이 자국의 지배집단(특히 자본)의 이익을 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저자가 미국의 외교정책이 자본가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정통맑스리즘에서의 '총자본' 분석에만 의존하거나 슈만(F. Schurmann)이나 커밍스(B. Cumings) 또는 퍼거슨(T. Ferguson)의 '자본분과' 분석에 대한 단순화된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자는 자본분과적 이해관계와 총자본적 이해관계의 결합과정과 현실적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국외내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과 경제적 이해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국내외의 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환경에 대한 인식과 미국이익실현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라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현실주의적 고립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고립주의' 등 네가지 다른 대응방식(외교정책노선)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단순한(naive or crude) 경제결정론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를 외교정책의 분석에 도입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노력은 외교정책론분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국가론의 발전에도 적지않은 공헌을 하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외교정책(한국의 경우 대한정책)이

국제정치학의 논리와 구조,
한국외교정책의 현황·전망을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내적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여라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정치학
주요이론을 소개·평가하고
구체분석도 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잘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매카니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저자가, 한국이 통일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으로서,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논리극복과 미국의 일반시민과의 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외교정책과 한국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한 저자의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접근방식(현실주의적 권력정치론)이나 자유주의적 접근방법(정책결정권자의 퍼스널리티나 리더쉽 유형이나 조직이해관계 또는 관료기구간의 갈등과 타협을 강조하는 접근방식, 이익집단접근방식,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과정을 분석하는 접근방식 등)이 갖지 못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바람직한 외교정책노선 제시도

지금까지의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설명방식이 갖고 있는 전제는 미국국가(정부)가 미국 사회내에서의 지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는 현실주의적 권력정치이론의 가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즉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한 개입정책(예, 월남전에의 개입)을 추구한 것은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국제정치질서의 '본질적' 특성(즉, 무정부상태)이 모든 국가에게 요구하는 행동원리(마키아벨리적 권력정치와 술수)에 따른 것이며, 미국이라는 개별국가의 속성에서 그 요인을 찾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물론 크레즈너(S. Krasner)와 같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여기에 덧붙여 미국의 개입정책들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때문

에 생겨난(미국국가의 군사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실책 내지 에피소드적 사건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분석 역시 이데올로기와 경제의 관계를 무리하게 분리하여 사고하려는, 미국의 개입정책을 비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정치적 논리로 정당화된 정책과 행동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철되는 매카니즘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국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의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한국의 외교정책방향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까지와 같은 '종속적 군사관계 중심'의 한미관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제안이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종속적 군사관계를 정당화하는 각종 논리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미국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저자는 주한미군주둔과 팀스피리트훈련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평가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접근방식, 그리고 한국정치에의 몇 차례의 개입(한국전쟁중의 이승만 제거음모,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에의 개입, 광주사태에의 '개입', 6.29선언의 조정)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에 입각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태도가 특수하거나 에피소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교정책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타 국가, 특히 제3세계에 대한 개입정책들이 갖는 공통적인 성격과 과정에 대한 분석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온 이삼성 교수의 두 저작은 현재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직면한 한계(강대국중심의 이론과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여)를 극복하고, 한국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외교정책노선을 논의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믿으며, 따라서 국제정치학도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보아야 할 중요한 연구성과라 하겠다.